

이숙자 남원시의원, 민원 사항 해결 완료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사진)은 최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데 이어, 월락동 해프레베스티움 아파트 앞 하수도 구간 정비를 비롯한 주요 민원 사항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월락동 일원 해프레베스티움 아파트 입구부터 유압유베스티움 아파트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로 구간에 제기된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과 주민 이동이 잦은 곳으로, 불법 주차와 도로 환경 미비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하수도 구간 가드레일 설치 △불법주차 집중 정비 및 계도 △차량 및 주민 이동이 많은 길가 주변 환경 정리·정비 등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특히 하수도 인접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보행자 추락 위험을 예방하고, 불법주차 단속과 도로변 정비를 병행해 차량 흐름과 보행 안전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는 1차 현장 점검 및 관계 부서 협의 이후 신속히 추진된 결과로 주민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민 심뇌혈관질환 예방 힘쓰는 계기’

남원시보건소, 11월까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혈압·혈당 수치 인지를 향상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은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일대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단 9월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첫째 주 월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6명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고혈압·당뇨병 건강 위험군(의심자 전 단계) 105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들에게는 전문 진료 상담을 제공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상담을 제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선행질환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측정·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김성진 팀장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꾸준한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새강병원, 평화1동에 백미 전달

전주 새강병원(공동병원장 배규환, 이종명, 송하현, 김성탁, 유정근)은 7일 평화1동 주민센터에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인근에서 진료로 시작한 새강병원은 3월 7일 개원식을 열고 개원축하금으로 받은 백미를 평화동 평화2동 주민센터, 평화동 인근 사회 복지관 등에 백미 500포를 전달했다.

공동병원장 배규환은 “개원식을 갖게 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찾다가 개원축하금 대신 백미를 받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새강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화동 이금안 동장은 “병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개원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백미를 나눔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해 주신 물품은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삼례 딸기 맛에 반했다... 삼례 딸기축제 ‘성황리’

고품질 삼례 딸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 ‘제24회 완주 삼례 딸기축제’가 지난 8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의 여정을 마치고 수많은 방문객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본보 3월 9일자 1면)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삼례 딸기만의 독특한 맛과 품질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국 상춘객들의 발길을 완주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이번 축제는 딸기 수확 체험과 디저트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선 체험형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신선한 딸기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이는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주민과 농업인이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상생형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짜임새 있는 등산 운영 등 행정 전반에서도 수준 높은 역량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삼례 딸기의 브랜드 파워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부안군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8일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지사회장, 대한적십자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최민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부안군의회는 적십자 인도주의의 활동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교도소, 법무보호 전북지부 대상 참관 나서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와 산하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나섰다.

이날 참관에는 이승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을 비롯해 사전상담위원회 위원 등 14명이 참여했으며, 선진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과 함께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구내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정시설 참관자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현장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수용자 교정·교화 과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이승경 지부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순풍 전주교도소소장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0만호기자

민주평통 임실, 올해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협의회장 염성열, 이하 임실군협의회)는 지난 4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정책건의 의견수렴, △2026년 임실군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좌석을 원탁 형태로 배치하고 분과별 토론 및 발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자문위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그리고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분과별 토론에서는 자문위원 1인당 50명 이상 인력



임실=진홍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등,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는 지난 8일, 춘향골농협 통합지원센터에서 △남원농협 △운봉농협 APC △지리산농협 등 관내 농협 7개소 임직원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최근 헌혈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이웃과 생명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종주 지부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서 5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생명 선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말기 환자 4명에게 새 삶의 희망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9일 50대 남성 우모(52)씨가 장기기증을 통해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하고 영면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우 씨는 지난 2월 21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전북대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의뢰자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큰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기독교 신자로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을 실천해 온 고인의 삶을 기억하며 생명 나눔을 선택한 것이다.

고인은 심장과 폐, 간 신장을 기증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던 말기 환자 4명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전했다.



유가족은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평소 성격을 생각하면 분명 기증을 선택하셨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기증된 장기가 말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자본센터,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행 시작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9일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세탁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세탁사업은 9일 민경을 대동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전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세탁이 필요한 가정의 이불과 카페트 등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위생 관리와 생활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겨우내 사용한 이불 및 카페트 등을 깨끗하게 세탁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동세탁사업에는 김제 출신 가수 현숙이 김제시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이동세탁차량이 활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올 상반기 도서관 아카데미 진행

김제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9월부터 ‘2026년 상반기 도서관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1개 강좌가 상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실버인기 책놀이 지도사 1급’과 ‘초등 책놀이 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이 운영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과정은 책을 활용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노년층의 인지 활동을 돕거나 어린이 독서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강좌는 브런치 작가되기, 문인화, 그림책 심리여행, 시니어 북투어, 서예, 시와 수필, 즐거운 인문학 등으로 다양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카카오톡 플러플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고 책으로 출판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브런치 작가되기’ 강좌를 시작으로 글쓰기, 인문학, 문화예술, 건강 분야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